

문화전당 공식 개관 D-1 임향순 표문화수도조성위원장

“문화융성 거점 문화전당 지지층 생겨야 성공한다”

임향순(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조성위)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최근 광주를 방문했다. 임 위원장은 광주일보와 만나 “문화전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서포터즈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그는 “기부·후원자들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문화전당에 대한 후원과 기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조성위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문화전당 건립을 포함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화전당 개관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문화전당 개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다. 문화전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화전당이 콘텐츠 제작·유통과 대관, 문화상품 판매·관광 명소화 추진 사업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한다면 문화융성의 거점 공간이 될 것이다. 또 아시아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첨단 복합 문화기관이 될 수 있다.

기부·후원자 세제혜택 필요
텔런트 장나라씨 홍보대사
각종 사업 지역민 관심을



▲임향순 위원장은 ▲장흥출신 ▲제10회 행정고등고시 ▲광주지방국세청장 ▲제2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전국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중앙회총재 ▲국민대회합위원회 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전국 시도민향우연합회 대표총재

에 관심을 갖도록 힘을 것이다. 특히 문화전당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와 후원문화를 만들어내겠다. 세정 경험을 살려 기부·후원자들이 떳떳하고 명예롭게 문화기관을 돕도록 다양한 절세·면세 방안을 찾을 것이다. 후원·기부자도 적극 발굴하겠다. 문화전당에는 정치 정당과 유사한 '진성당원'이 필요하다.

-조성위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성사업의 핵심인 문화전당 건립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나 조성사업 관련 논의가 항상 진행되고 있다. 또 문화전당 개관 이후인 26일에는 문화전당 미래비전과 조성사업 현안을 심의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도 향후 운영과정에서 추가인력이 필요할 경우 행자부와 협의할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광주시민들이 먼저 문화전당과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들 사업은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 조성사업은 국가적 문화프로젝트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5·18 명예회복 앞장” 5월 단체 서울 빈소 조문키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광주·전남 분향소 추모 행렬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조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들이 조문단을 꾸려 빈소를 직접 조문하기로 한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고 5·18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는 등 광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명예회복에 앞장 선 최초의 대통령이었다”고 규정된 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무맹랑한 통치 논리를 사법 정의로 심판, 무고하게 학살당한 광주시민의 억울함을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5·18 기념재단은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쟁쟁기념사업회, 노년리국제평화재단, 제주 4·3 평화재단과 함께 조문단 김 전 대통령 측에 공로패를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협의 거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법

처리, 5·18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선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패 전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1995년 12월 3일을 맞아 다음달 3일 국회에서 예정된 학술대회에서 김 전 대통령 측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서거로 공로패 전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형호기자 khh@



박근혜 대통령이 주유 20개국 정상회의 등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전 6시10분에 귀국한 뒤 8시간만에 서울대병원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헌화했다. /연합뉴스

“공기처럼 잇기 쉬운 민주주의에 족적 남겨”

박 대통령·이회창 전 총리·이희호 여사·윤장현 시장·이낙연 지사 애도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빈소에는 서거 이틀째인 23일에도 애도 발길이 이어졌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휠체어를 타고 아들 흥업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과 빈소를 방문했다. 6년 전인 2009년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이 여사는 YS 차남 현철씨의 안내로 헌화·분향을 마친 뒤 귀빈실로 자리를 옮겨 YS 부인 손명순 여사와 짧은 만남을 가졌다. 두 여사는 서로 몸이 불편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눈빛으로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표정이었다.
동교동계 좌장인 새정치연합 권오갑 상임고문,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전정배 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각각 빈소를 찾았다.

이들 빈소를 찾은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현대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면 김영삼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손 전 고문은 진보개혁 성향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YS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YS 정부에서 여당 대변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다.
김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로 종용됐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비롯해 정운찬·김황식·정종원 전 국무총리와 김진표·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전직 고위직 인사들의 발걸음도 줄을 이었다.
이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족적을 남기셨다”면서 빈소 방명록에 남긴 사자성어 “음수사원(飲水思源)”을 언급한 뒤 “물을 마시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

의가 생활화해서 (물처럼) 공기처럼 민주주의의 존재나 족적을 잇기 쉬운데, 김 전 대통령과 같이 역할을 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낮 빈소를 찾은 윤장현 광주지사는 “광주 5월 폭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역사 속에 세우주신 고인에 대한 흠모와 애도의 뜻을 깊게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방명록에 “아침에 가면 사모님의 시래깃국, 밤에 가면 대통령님의 와인을 주셨던 상도등을 기억하며”라는 정치부 기자 시절 인연을 담은 글을 남기며 애도를 표했다.
재계에서도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산그룹 회장), 현정호 현대그룹 회장, 박병원 경총회장 등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